

## EXHIBITION

October, 2016 | 에디터 이연우

PAGE 40

CULTURE

WWW.FIRSTLOO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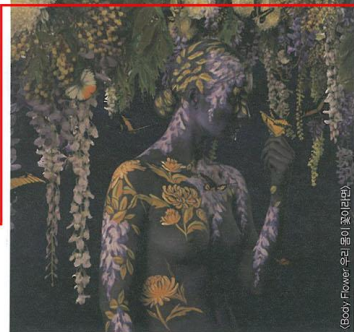


(Wook-kyoung Choi, American Year 1962-1971)

### ▶ EXHIBITION

국제갤러리에서는 10월 30일까지 감행하고 대담한 작품 세계를 지닌 추상화 작가 최옥경의 개인전 〈Wook-kyoung Choi: American Years 1960s-1970s〉를 연다. 2005년 이후 11년 만에 열리는 국제갤러리 개인전으로 초빙 큐레이터 김성원이 기획했다. 현대 추상미술 유파 가운데 추상표현주의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최옥경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제작한 70여 점의 회화 작품을 선보인다. 한국 현대미술사적 맥락에서 단색화 외에 다양한 예술적 실험이 병립했음과 함께 주류 바깥에서 독자적 작품 세계를 확립한 작가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의 02-735-8449

호주 출신 여성 예술가 에마 핵(Emma Hack)의 사진전 〈Body Flower 우리 몸이 꽃이리만큼〉이 개최된다. 인체를 캔버스 상아 주변 환경과 일치시키는 '위장술(카무플라주)' 아트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에마 핵의 이번 전시는 국내에서 최초로 열리는 것으로, 인간과 자연, 회화와 조각, 퍼포먼스와 사진이 하나가 되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한다. 10시간 이상의 수작업으로 완성되는 에마 핵의 작품은 배경과 인체가 절묘하게 일치된 시간적 아름다움을 완성할 뿐 아니라 디지털이 그려, 혹은 사진으로 평면과 입체를 넘나드는 착시 효과를 전달한다. 전시는 10월 30일까지 사바비 미술관에서 계속된다. 문의 02-736-4371



(Body Flower: 우리 몸이 꽃이리만큼)

# life

CULTURE

editor 이연우

### ▶ MOVIE



**그를**  
드라마 | 개봉 10.6 | 감독 김기덕  
출연 류승범, 이원근, 김영민, 최귀화, 손민석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감독 김기덕과 대한민국 최고의 개성파 배우 류승범이 만나 개인과 사회,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날카롭고 섬세하게 담아냈다. 자신만의 확고한 작품 세계를 선보이는 김기덕 감독의 신작 〈그를〉은 배가 그물에 걸려 아찔 수 없이 남북의 관계선을 넘게 필목한 이부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 건타이던 했던 치열한 일수임을 그린다. 제2회 미니스크리프영화제, 제4회 포포로 국제영화제 초청작으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이끌어낸 바 있는 검증된 수작이다.



**춘몽**  
가족 | 개봉 10.13 | 감독 장률  
출연 한예린, 양익준, 박정민, 윤희빈, 이준동, 이주영  
〈두만강〉, 〈종종〉, 〈경주〉 등의 작품을 통해 국내외 유수 영화제를 휩쓴 시네마 이태호는 장률 감독의 열 번째 장편영화 〈춘몽〉이 제2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되며 정식 개봉까지 확정 지었다. 감독 특유의 담담하고도 묵묵한 시선을 마음은 총백영화로 완성된 더욱 눈길을 끄는 이 작품은 마치 한 편의 영상 시를 만나듯 듯한 깊은 감성을 전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남다른 분위기를 지닌 여배우 한예린과 〈동파리〉의 양익준, 〈무신장기〉의 박정민, 〈변희열의 전쟁〉의 윤희빈 감독이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췄다.

### ▶ MUSIC



**클래지콰이 (Travellers)**  
어느덧 2년이다. '함께할 때 우리의 색깔이 나온다'는 명반의 알차짐 그들의 분명한 색깔이 여전히 '고민'이 행복하게 들어 있는 클래지콰이의 '집' 앨범이 발매됐다. 편안하게 귀에 걸리는 '가' 앨범은 발을 뭉두루 뭉두루한 일렉트로닉으로 생애는 감정을 표현한 '무궁화' 등 대중적인 스타일에서 독특한 일렉트로닉 사운드의 곡까지 다채로운 스타일링을 펼쳐 보인다. 가사와 멜로디 모두 공감을 이끌어내는 노란색이 돋보인다.



**바스티 (Wild World)**  
대부 앨범으로 영국 앨범 차트를 휩쓸며 전 세계를 열광시킨 밴드 바스티가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내놓았다. 프로그레시브 락과 다시 손질되고 세 앨범은 주에 차려 갈기는 웨이스 사운드의 서로 록의 신념들이 특징인 '굿 라이프'를 포함한 총 14곡이 수록돼 있다. 전작에서 보여준 강렬하고 풍부한 사운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혁명적인 밴드'답게 전자악기에 신선한 사운드를 더해 새로운 음악의 방향을 제시한다.



**더 모노톤즈 (여름의 끝)**  
'이보다 더 근사할 수 없다' 싶었던 데뷔 앨범 이후 놓아진 기대감을 충분히 충족시킨다. 감성은 '영' 2호라는 긴 라틴팝이 당혹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다양한 장르들이 한데 어우러진 듯한 드라마틱한 구성과 작절하게 녹아 있는 다채로운 감성, 유려한 리프와 여러 악기들의 조화로운 어울림이 이미지도 앞서 아삭이는 마음을 뭉게 한다. 한여름의 뜨거운 열기를 떠올리며 지금 꼭 한번 들어봐 할 음악이다.